

## Reading & 해석

Claes Oldenburg is another pop artist who made art fun.

Claes Oldenburg는 예술을 재미있게 만들었던 또 다른 팝 아트 작가이다.

He made sculptures of everyday items, such as a hamburger, cookies, and a brush.

그는 햄버거와 쿠키, 붓 같은 일상적인 물품들의 조각품을 만들었다.

In the beginning, he created soft sculptures.

처음에 그는 부드러운 조각품을 만들었다.

They were made of plastic, paper, and other soft materials.

그것들은 플라스틱, 종이,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For example, he used cloth to make toilets.

예를 들어서 그는 변기를 만들기 위해 천을 사용했다.

Later, he made huge sculptures of daily items, such as an ice cream cone.

나중에 그는 아이스크림콘 같은 일상 물품의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었다.

Wanting everyone to enjoy his art, he set up his works in outdoor places.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예술을 즐기기를 원해서 작품들을 옥외에 설치했다.

He also ran a store inside his studio to sell his works.

그는 그의 작품들을 팔기 위해 스튜디오 안에 상점도 운영했다.

For him, artistic works were fun goods for people.

그에게 예술적인 작품들은 사람들을 위한 재미있는 제품이었다.